

정부-8개 조선사, 안전문화 확산... 위험표지판 부착 등 실시

HD현대중공업 등 업무협약 체결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합동점검
'조선업 10대 안전수칙' 집중 전파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8개 주요 조선사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후 LW컨벤션에서 HD현대미포, HD현대사호,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대선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 8개 조선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량 회복으로 호황을 맞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등 신규인력이 다수 유입되고 작업량 증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은 2022년 세계 선박 발주량 점유율에서 2위,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 점유율은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1~3분기 조선업 신규 총원 인력 중 외국인은 86%를 차지한다. 다만 조선업 특성상 제조업과 건설업 위험요인이 공존해 조선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86퍼밀리아드(만분율)로 통상의 두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 조선사와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전국 조선업 현장에 안전문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를 확산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8개 조선사와 고용부, 안전공단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사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사업장 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메시지를 부착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제대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업 10대 주요 안전수칙'도 집중 전파해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알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교육에서도 조선사 간 협력이 강화된다. 기존 조선사별로 보유한 교육

자료와 설비를 함께 활용해 보다 내실화된 조선사 합동 교육이 시행된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최대 25가지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 17종도 공유·지원한다. 원청에 비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협약은 세계무대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안전에서만은 '원팀(One team)'임을 선언하는 자리"라며 "오늘 모인 8개 조선사들이 협약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라는 큰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함께 쌓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장관 "닭고기 가격 안정" 당부

송미령 장관 한강식품 방문·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내 한 닭고기 공급업체를 찾아 소매 가격 안정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 소재 ㈜한강식품(닭 계열화 사업자)을 방문해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계열화사업자가 중심이 돼 계열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확대해 닭고기 가격안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가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지원을 올 연말까지 추진해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겨울 철저한 방역관리로 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분간 소비자가 가격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경기 화성의 한 닭고기 공급업체를 방문해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와 협력해, 종계와 병아리 추가입식을 지원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계열화사업자가 하나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값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피해 최소화가 수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립공원 캠핑장서 다회용기 대여 시작

환경부, 친환경 사업 공동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22일 SK텔레콤 및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등을 포함한 친환경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야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다음 달 2일부터 5개 국립공원 내 6개 야영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장을 비롯해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2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야영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1·2야영장,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등

이다. 또 향후 대여 서비스 제공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여 서비스에 쓰이는 다회용기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그릇과 접시, 수저 및 다회용 컵 등 15종으로 구성된 일회용품 없이 편리하게 탄소중립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야영객에게 제공되는 다회용기는 대여·세척 전문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에서 회수해 전문 설비에서 세척·소독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야영장에 제공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호지역인 만큼 일회용 폐기물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탄소중립 야영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촌융복합 스타트업 발굴 '자문사 2곳' 선정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농촌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농촌융복합 분야 우수 신성장업계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 액셀러레이터(투자 및 지도·조언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길러내는 기관) 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는 농촌지역에 주 사업장을 두고 국내 농산물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능형농장(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농식품 기술 분야의 농촌융복합 분야



세종 정부청사 내 농식품부 전경. /메트로

를 신설해 농촌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액셀러레이터 2개사는 한국사회투자자와 로우파트너스·충남 기술지주 컨소시엄이다. 이 두 곳은 농촌융복합 스타트업을 각각 10개사 이상 발굴해 기

업 진단, 멘토링, 최소 2억8000만 원 이상의 액셀러레이터 자체 투자 및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촌융복합 사업자 인증을 받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다. 다음 달 2일부터 프로그램 신청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액셀러레이터별 세부 계획은 농식품 창업 정보망, 케이스타트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누리집(6차산업.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도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많다"며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 혁신가, 기업가들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관리 기술 전수

환경부, 에코도르 연구자 대상 연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2일부터 2주간 에코도르의 유전자원 관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유전정보 분석 및 관리 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에코도르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 사업(2022~2028)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에코도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INABIO) 및 7개 바이오센터 소속 연구자 10인을 초청해 향후 에코도르의 자립적인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운영에 필요한 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연수일정은 △유전자원관리 시설과

기술 △우리나라 자생생물 관리 시스템 △디엔에이(DNA) 바코드 생성 및 기서열분석 △생물정보학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자원관은 지난해 에코도르 생물자원 기관 소속 연구자와 관리자 17명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국내 전문가를 에코도르로 장기 파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95명의 현지 유전자원 관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22~26일까지 5일간 진행

노사발전재단은 22일~26일까지 5일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립시흥 부차관 등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노동정책 발전을 위한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서 캄보디아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등 소속 국·과장 등은 우리나라 한국노동연구원 등을 방문해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인프라 등에 대한 강의와 간

담회에 참석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과 고용부 베테랑 근로감독관이 참여해 한국의 분쟁조정 및 근로감독 현장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속적인 정책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된다.

앞서 노사발전재단은 2015년 최저임금 및 근로감독 분야에서 캄보디아 근로 조건 개선 정책 자문을 수행했고, 그 결과 2019년 캄보디아 최저임금위원회(NMWC)가 설립됐다.

/세종=한용수 기자